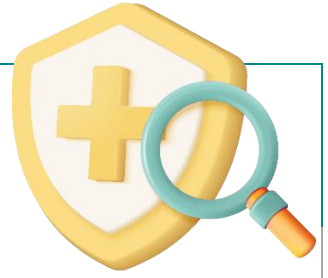


하나 Biweekly 제약/바이오(2월 중간)

제약바이오 Biweekly | 2026년 2월 19일



Analyst 김선아 seona.kim@hanafn.com

RA 유창근 changkeunyoo@hanafn.com

아직 겁먹을 때 아니다, 오를 종목을 찾아 둘 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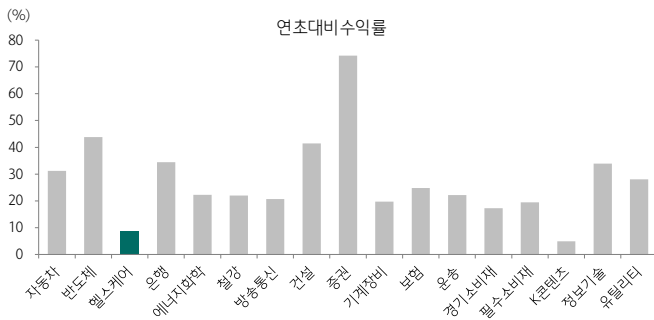
1) 2026년 2월 제약/바이오 산업 중간점검

- **2-3월은 학회도 비수기, 연간 전망을 되짚어 보자** 어쩐지 제약/바이오 종목이 매력 없고 심심하다면, 시장을 흥분시키는 기술이전이 없었거나 학회나 컨퍼런스 비수기인 것도 요인이라 볼 수 있다. 3월 말부터 Bio Europe, ELCC 등이 열리며 기업들이 대외적으로 활발한 활동을 보이기 전까지는 막연히 아직 공개되지 않은 무언가를 기다릴 수 밖에 없다. 이럴 때일수록 다시 한 번 연간 전망을 되짚어 보며, 올해 주목 받을 종목을 골라 두면 좋겠다. 우리는 먼저 1) 비만 치료제 테마는 저물어 가면서 살아 남은 몇 개의 기업만 시장의 주목을 받을 것이라 전망했다. 대표적인 기업으로 경쟁이 격화되는 GLP-1은 개발을 종료하고, 삼중작용제와 근육 증강제로 새로운 트렌드에 집중하는 한미약품이 있다. 2) T2D → 비만을 지나 Next indication인 MASH와 뇌질환에 주목할 필요가 있고, 대표적인 기업으로는 MASH 임상2상 결과 발표를 앞둔 한미약품, 디앤디파마텍, 그리고 BBB 셔들을 보유한 에이비엘바이오가 있다. 3) ADC 테마는 관련 학회인 4월 AACR 내지 5월 ASCO 시즌부터 본격화 될 것으로 전망되고, 대장주인 리가캠바이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4) 유전자치료제이다. 최근 한 달 간 Lilly가 Seamless과 유전성 난청 치료제 개발 계약, circular RNA 개발사인 Orna Therapeutics를 인수하였다. 이미 협업을 맺어 시장의 주목이 기대되는 올릭스, 알지노믹스, 그리고 수주를 확대해 나가는 중인 에스티팜도 관심 가져볼 때이다. 주요한 선행 지표로 보는 미국 10년물 국채금리와 나스닥 바이오섹 지수가 다소 횡보하지만 꺾이지 않았고, 정부의 코스닥 시장 활성화 정책 등 대외적인 분위기를 보면 여전히 상승을 기대할 만 하다.
- **약가 인하 개선안 발표 카운트다운** 제약사 주가는 이미 이 우려를 반영하여 호실적 발표에도 크게 오르지 못하고 횡보하는 분위기이나, 개선안이 발표되고 각 기업별 영향력이 계산되어 실적 전망 조정이 이루어지기 전까지 주가 상승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2월20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소위원회 개최할 예정인데, 이 날 구체적인 산정률과 산정 방법 등을 포함한 개선안의 세부 내용이 공개될 예정이니 참고하면 좋겠다. 이러한 분위기에서도 제약사에 대한 비중을 유지한다면, 매출에서 CDMO나 수출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고 제네릭/개량신약 비중이 현저히 낮은 기업을 추천한다. (셀트리온, 에프스홀딩스, SK바이오팜, GC녹십자, 삼성바이오로직스, 에스티팜 등).

2) 2026년 2월 추천 종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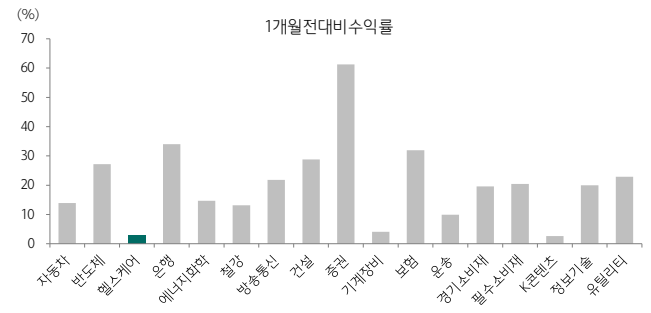
- **2월 코스피 Top pick(변경): 삼성바이오로직스** 1) 삼성바이오로직스는 '26년에 매출 성장 가이던스를 15~20% 제시했으나 주가가 부진하다. 아무래도 5공장 ramp-up에 대한 확신을 얻기를 바라는 듯하고, 6공장 착공 소식이 그 확신을 줄 것으로 예상한다. 2) 한미약품에 대해 연간 장기적으로 긍정적인 전망을 유지하나, 약가 인하 영향이 있는 제약사로서 2월20일 건보심에 상정된 내용의 확인이 필요하다.
- **2월 코스닥 Top pick(유지): 리가캠바이오, 디앤디파마텍** 1) 리가캠바이오의 지금의 주가는 파트너십 파이프라인들의 성숙함으로도 설명이 가능하다는 판단이다. 즉, 신규 기술이전이 나오는 경우 upside로 반응할 것이다. 2~3월이 학회 일정 비수기 시즌이라 시기상 예상할 수 있는 이벤트는 없지만, post-Enhertu 임상 발표, PBD를 페이로드로 이용한 Cstone의 파이프라인 등으로 ConjuA의 가치를 다시 한 번 입증할 것으로 기대 한다. 2) 디앤디파마텍은 Pfizer가 4Q25 earning call에서 Met-2240에 관심을 보여주면서 다시 경구 비만치료제 모멘텀을 기대할 만 하다. 또한 5월 데이터 발표 예정인 MASH 치료제 DD-01, 자회사 Neuraly와 퍼스트바이오가 공동개발한 NLY-02(RIPK2 저해제), 15% 지분을 보유한 RPT 의약품 개발사 Z-alpha 등 (Z-alpha는 Lilly Gateway Labs에 본사를 두고 있고, Lilly가 JPMHC에서 RPT modality에 관심을 보인 바 있음) 주가 성장 모멘텀이 남아 있다.

도표 1. 섹터별 연초대비 수익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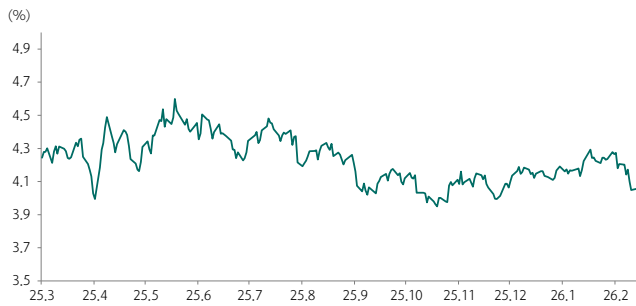
주: 2/13 종가 기준, 자료: Quantwise, 하나증권

도표 2. 섹터별 1개월전대비 수익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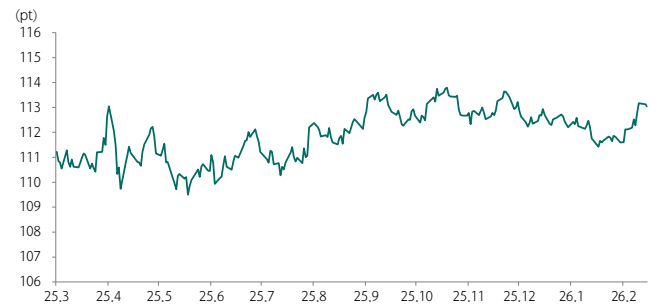
주: 2/13 종가 기준, 자료: Quantwise, 하나증권

도표 3.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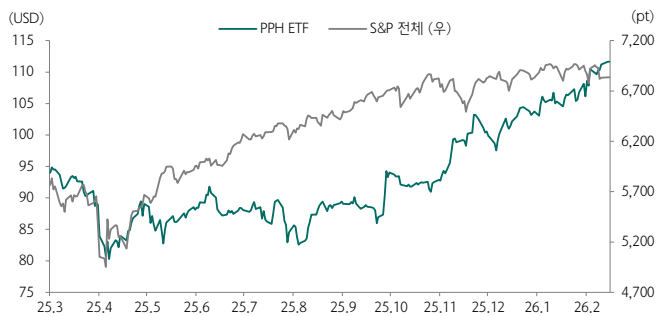
주: 2/17 종가 기준, 자료: Bloomberg, 하나증권

도표 4.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 선물



주: 2/17 종가 기준, 자료: Bloomberg, 하나증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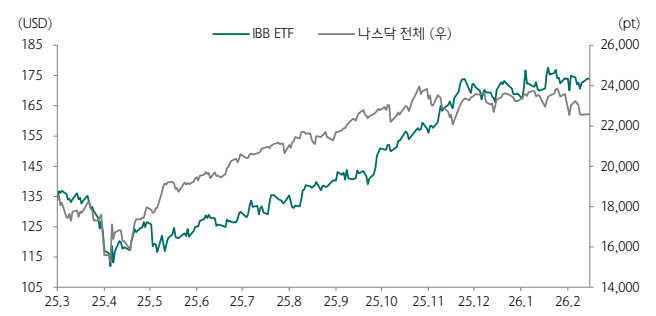
도표 5. VanEck Pharmaceutical ETF (PPH) 지수 (+S&P 전체 지수)



주: 2/17 종가 기준, 미국 상장 제약사 상위 25개 기업 선별 (수정 시가총액 가중 방식)
 종목 비중(상위 10개): Eli Lilly(19.42%), Novartis(10.48%), MSD(9.02%), Novo Nordisk(7.29%), Pfizer(4.77%), J&J(4.61%), BMS(4.50%), GSK(4.46%), McKesson(4.28%), AstraZeneca(4.24%),

자료: Bloomberg, 하나증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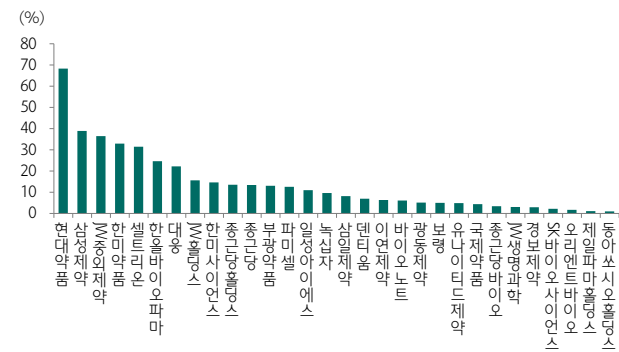
도표 6. iShares Biotech ETF (IBB) 지수 (+나스닥 전체 지수)



주: 2/17 종가 기준, Nasdaq Biotechnology Index (NBI) 추종 (시가총액 가중 방식)
 종목 비중(상위 10개): Gilead(9.12%), Vertex(8.77%), Amgen(8.00%), Regeneron(6.48%), Alnylam(3.79%), argenx SE(2.94%), Insmed(2.85%), Natera(2.62%), Biogen(2.28%), BeOne Medicines(2.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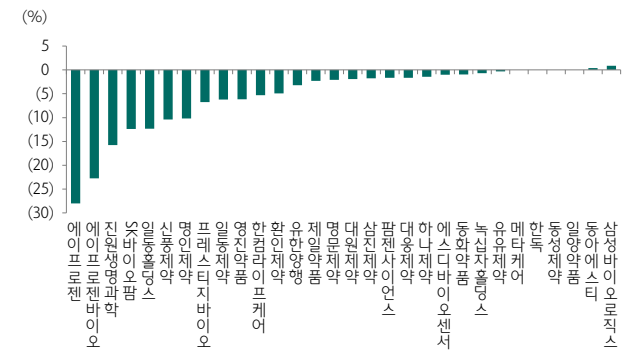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하나증권

도표 7. 코스피 제약/바이오 연초대비 수익률 순(상위 30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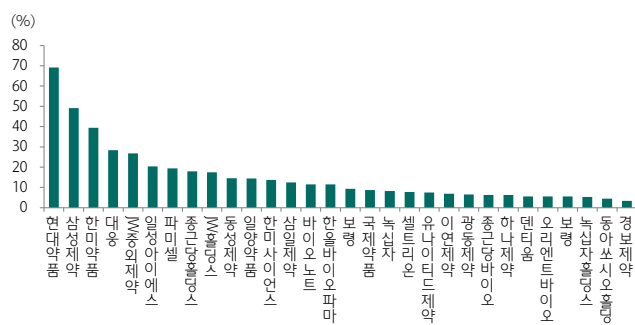
주: 2/13 종가 기준, 자료: Quantiwise, 하나증권

도표 8. 코스피 제약/바이오 연초대비 수익률 순(하위 30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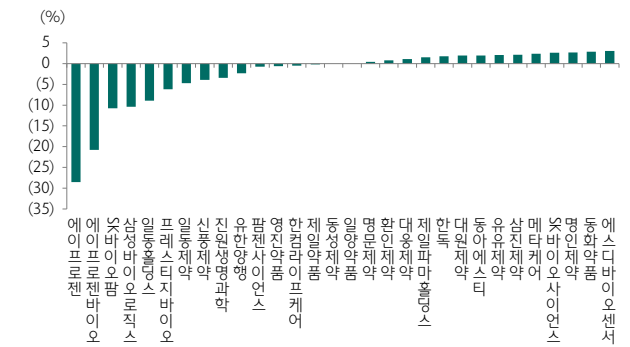
주: 2/13 종가 기준, 자료: Quantiwise, 하나증권

도표 9. 코스피 제약/바이오 1개월전대비 수익률 순(상위 30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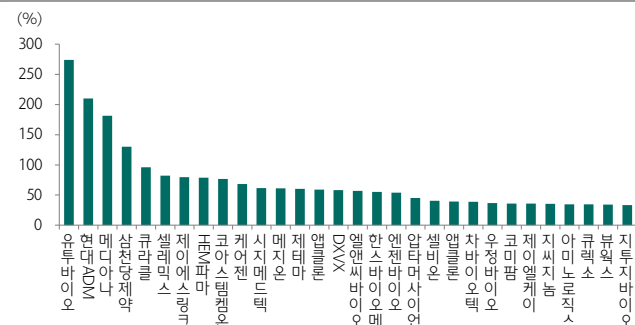
주: 2/13 종가 기준, 자료: Quantiwise, 하나증권

도표 10. 코스피 제약/바이오 1개월전대비 수익률 순(하위 30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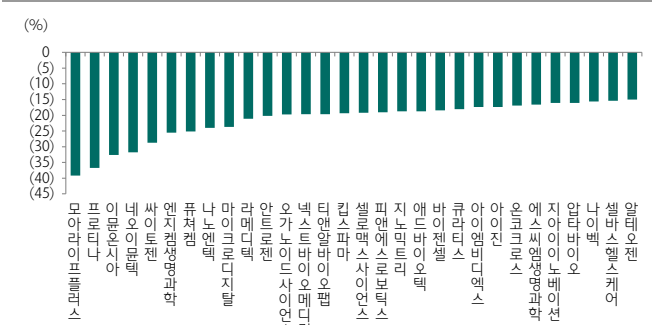
주: 2/13 종가 기준, 자료: Quantiwise, 하나증권

도표 11. 코스닥 제약/바이오 연초대비 수익률 순(상위 30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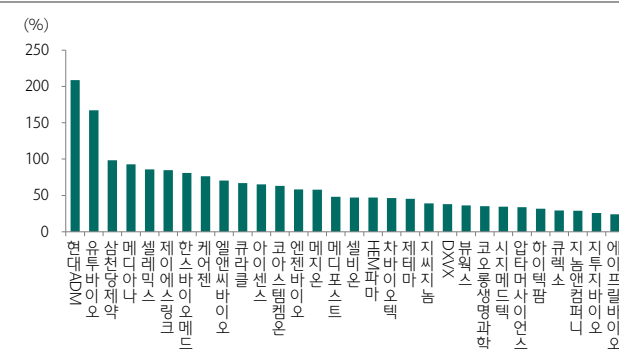
주: 2/13 종가 기준, 자료: Quantiwise, 하나증권

도표 12. 코스닥 제약/바이오 연초대비 수익률 순(하위 30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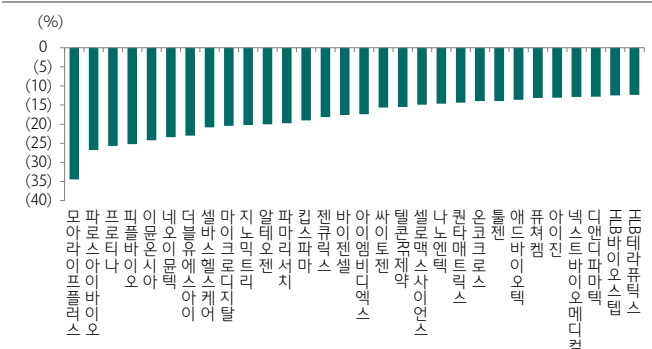
주: 2/13 종가 기준, 자료: Quantiwise, 하나증권

도표 13. 코스닥 제약/바이오 1개월전대비 수익률 순(상위 30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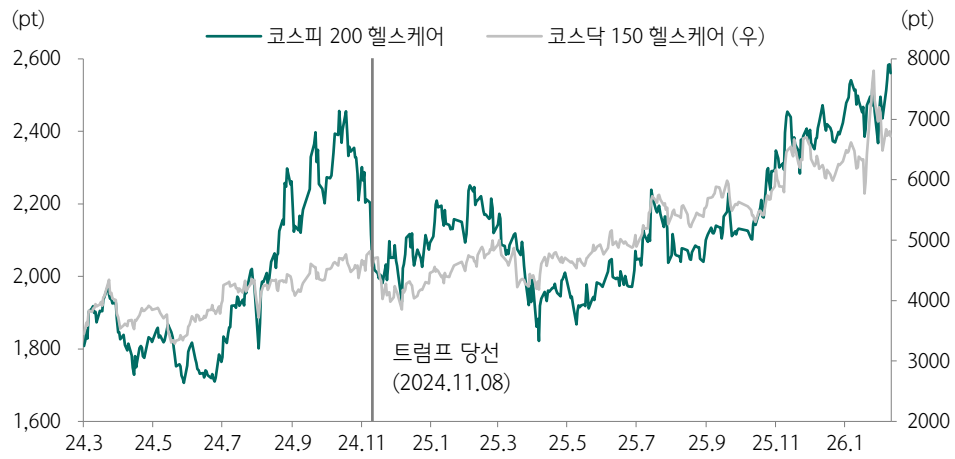
주: 2/13 종가 기준, 자료: Quantiwise, 하나증권

도표 14. 코스닥 제약/바이오 1개월전대비 수익률 순(하위 30개)



주: 2/13 종가 기준, 자료: Quantiwise, 하나증권

도표 15. 트럼프 당선 전후 코스닥과 코스피 헬스케어 지수



주: 2/13 종가 기준

자료: Quantivise, 하나증권

지난 2주 간 주요 이슈 및 관련 기업 코멘트 (Biweekly 발간 기준일 2/2 이후)

[2/3] Roche: SanogeneBio의 RNAi 프로그램 중 하나에 대한 라이선스 인수 (최대 \$1.5bn)

- 이벤 기술도입한 파이프라인은 구체적으로 어떤 적용중에 관한 것인지는 비공개. SanogeneBio는 전임상까지의 초기 단계까지 개발, 이후 Roche의 자회사인 Genetech이 임상 개발 및 상업화 활동 담당. Upfront \$200mn, 개발 및 상용화 마일스톤 최대 \$1.5bn, 로열티 별도의 조건
- SanogeneBio는 RNAi 플랫폼 기반 치료제 개발 기업으로, 리드 파이프라인은 보체 3와 관련된 신장병 치료제이고 현재 임상2상 진행 중. 다만 표적 장기로 간에 집중적으로 개발을 이어가다, 최근 지방세포, 골격근 등을 타겟하는 비만, MASH 치료제 등으로 확대
- 한편 Roche는 2010년 RNA 치료제 개발을 중단하였다가, 2014년 Santaris Pharma를 \$450mn에 인수하며 다시 개발을 재개하였고, Swiss pharma로부터 zilebesiran의 미국 개발권을 확보한 후 현재 고혈압치료제 3상 진행 중

[2/4] Pfizer: 월1회 비만치료제 PF-08653944(MET-097i)의 임상2b상(Vesper-3) 결과 발표

- PF-08653944(MET-097i)는 Metsera 인수를 통해 확보한 비만 치료제로, 월1회 투약 임상2b상 결과를 발표. T2D 없는 비만 또는 과체중 성인 250명 대상, 12주간 주1회 투여 후 월 1회로 전환(월1회 투여량은 마지막 주1회 투여량의 4배 투약). 28주차 기준 저용량 및 중간용량 투약 시 위약대비 체중 감소를 각각 10% 및 12.3%를 기록
- 향후 임상3상 진행할 계획. 다만 중도 탈락을 데이터와 병용요법 결과 확인이 필요

[2/4] AZ-Daiichi Sankyo: Datroway의 TNBC 환자의 1L 치료제로 FDA 허가 신청

- TROPION-Breast02 임상에 근거, PD-1/PD-L1 억제제 치료가 불가능한 전이성 삼중음성유방암(TNBC) 환자 대상. Priority Review 지정으로 2Q26 내 FDA 승인 예상.
- TNBC 환자 70%는 면역 요법 대상이 아님 (PD-1이 발현되지 않거나, PD-L1이 발현되지만 면역 요법에 불응). TROPION-Breast02 결과에서 1L 치료로 화학요법(ICC)과 비교 시, mOS 5.0m 연장 (HR 0.79, 23.7m vs. 18.7m), 질병 진행 및 사망 위험을 43% 감소시키는 효과 (HR=0.57, mPFS 10.8m vs. 5.6m), ORR 62.5%(vs. ICC 29.3%), DoR 12.3m(vs. ICC 7.1m)을 보였고 통계적 유의성도 달성하였다. 다만 3등급 TRAE는 Datoroway 군이 더 높았고, 간질성폐질환으로 인한 사망1건을 포함함

[2/5] Novo Nordisk: 경구용 semaglutide 관련 Hims&Hers Health와 분쟁

- 2/5, Novo Nordisk의 경구용 semaglutide 1.5mg, 4mg, 9mg 용량이 FDA로부터 승인을 획득했고, 연내 25mg 용량에 대해서도 승인을 기다리는 중. 우선 FDA로부터 승인받은 용량에 대해 2Q26 내 비만치료제로 출시할 예정. 예상 약가는 월 \$149
- 2/6, Hims&Hers Health가 semaglutide 성분을 함유한 경구제를 월 \$49에 제공하겠다고 언급하며, Novo Nordisk가 불법 복제약의 특허 침해, 출시 철회 관련해 소송 제기
- 2/6, FDA와 HHS(보건복지부)는 연방 식품, 의약품 및 화장품법과 "해당되는 제18조 조항"의 위반 가능성을 이유로 미 법무부에 회부. Hims&Hers는 경구용 Semaglutide 출시 계획을 즉각 철회. 그러나 여전히 "맞춤형 치료를 위해 조제약에 의존하는 수백만 명의 미국인에 대한 노골적인 공격"이라고 주장하며 자신들의 불법 조제약 출시에 대한 타당성을 주장하는 중

[2/9] Eli Lilly: Innovent Biologics와 종양학 및 면역학 분야의 신약 개발을 위한 전략적 파트너십 체결

- upfront \$350mn, 마일스톤 \$8.5bn 규모, 중화권 외 지역에서의 판매출에 대한 로열티 별도. Innovent는 중국에서 후보물질 발굴부터 임상적 효능 입증(임상2상 완료) 및 중화권 내 권리 보유, Lilly는 중화권 외 전 세계에서 해당 프로그램을 개발 및 상용화할 독점권 확보
- Innovent는 25년 1월 Takeda에 3개의 종양 치료제 Asset (임상3상 단계의 PD-1/L-2 융합단백질, CLDN18.2 ADC, EGFRxB7H3 이중항체 ADC)을 총 \$11.4bn 규모로 기술이전 한 바 있음

[2/9] Kelun Biotech, 중국에서 TROP2 ADC인 sac-TMT에 대해 HR+/HER2- (3L) 유방암 치료제로 승인

- 中 NMPA는 TROP2 타겟 ADC인 Sacituzumab tirumotecan(sac-TMT, MK-2870)와 키트루다와의 병용 요법에 대해 OptiTROP-Breast02 임상3상에 근거하여 유방암 치료제로 승인. 이번 승인은 중국에서의 네 번째로 허가된 적응증임. 절제 불가능하거나 전이성인 HR+/HER2- (IHC 0, IHC 1+ 또는 IHC 2+/ISH-) 유방암 환자 중, 이전에 내분비 요법 및 최소 한 차례의 화학 요법을 받은 환자를 대상으로 함
- ESMO 2025에서 발표한 3상 OptiTROP-Breast02의 결과는, 화학요법 대비 PFS 8.3m (vs. 4.1m, HR 0.35), ORR 41.5% (vs. 24.1%)였고, OS는 미성숙 상태이나 HR 0.33으로 mPFS와 비슷한 경향을 보임. sac-TMT는 중국에서 1) 3L 이상 NSCLC (EGFR-TKI 치료 및 백금 기반 항암화학요법 후 질병이 진행된 EGFR 변이 양성 국소 진행성 또는 전이성), 2) TNBC(최소 두 가지 이상의 전신 치료를 받은 절제 불가능한 국소 진행성 또는 전이성), 3) 2L NSCLC (EGFR-TKI 치료 후 질병이 진행된 EGFR 변이 양성 국소 진행성 또는 전이성), 4) 그리고 이번 HR+/HER2- (3L) 유방암으로 허가를 획득. 중국 외 글로벌 임상3상은 MSD가 주도 중

[2/10] Eli Lilly: Circular RNA 기반 In vivo CAR-T 개발사 Orna Therapeutics 인수 (\$2.4bn 규모)

- Orna Therapeutics는 Circular RNA 플랫폼을 보유하고, 주요 파이프라인은 ORN-252로 CD19 표적 in vivo CAR-T임. B세포 매개 자가면역질환을 적응증으로 개발 중이고, 아직 비임상 단계. in-vivo CAR-T는 환자로부터 T-Cell을 채취하는 단계와 제조 site로부터 왕복 배송하는데 따르는 효율 감소 및 비용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음
- Orna Therapeutics의 Circular RNA는 PIE(역배열, Permuted Intron-Exon) 방식으로 형성되어, 알지노믹스의 Circular RNA(STS, Self Targeting & Splicing)와 차이가 있음. Orna는 '22년 MSD에 총 계약 규모 \$3.65bn(upfront \$150mn)에 Circular RNA 플랫폼 기반 감염병 백신 및 암 치료제 공동개발계약 체결, '25년 1월 Vertex에 SCD/TDT 포함 10개 프로그램에 대한 LNP 기술 공급 계약 최대 \$4.35bn(upfront \$65mn)로 기술이전한 이력을 갖고 있음

[2/10] Evommune: 중등도~중증 아토피 피부염 환자 대상 임상2a상 결과 발표

- 중등도~중증 아토피 피부염 대상 임상2a상 12주차 기준 EASI 점수 55% 감소, 위약군 22% 감소하여 1차 평가 지표 달성 (IV투여, 치료군 48명, 위약 22명). EASI 점수는 위약 보정시 8주차에 최대치 도달(위약 보정 후 -33%), 중대/중증 이상반응이나 치료 중단 없음. 임상2b상은 피하주사 제형, 16주 투여, 궤양성 대장염 추가 등을 반영하여 진행할 예정
- EVO301(APB-R3)은 IL-18에 결합하는 단백질로, 에이프릴바이오의 혈청 알부민 결합 도메인인 SAFA플랫폼(SAFAbody)을 적용해 반감기를 연장한 파이프라인 (2024년6월 upfront \$15mn, 총 계약규모 \$475mn)

[2/11] 올릭스: 키투브레인과 BBB 서틀 활용 CNS 치료제 공동 개발

- Key2Brain은 스웨덴 기업으로 TfR(트랜스페린 수용체)를 타겟하는 단일 중쇄가변부위(VHH, variable domain of a heavy chain) 항체 기반 BBB 서틀을 보유함. 이번 계약에서 올릭스는 CNS 관련 타겟에 대한 siRNA에 해당 플랫폼을 적용하는 권리를 갖고, 향후 독점권을 취득할 가능성을 열어둔 옵션 구조임

[2/11] Madrigal: 중국의 Suzhou Ribo 및 그의 자회사 Ribocure와 6개의 siRNA 후보물질 도입

- 이번에 도입한 후보물질 6종은 모두 전임상 단계임. Upfront \$60mn 및 최대 마일스톤 \$4.4bn 규모, 로열티 별도의 독점 라이선스 계약. 이번 계약 Madrigal의 MASH 파이프라인 확장 목적이고, 레즈디프라와의 병용으로 26년 내 초기 후보물질에 대한 IND enabling study를 진행할 예정
- 현재 레즈디프라 단독 F4(보상성 MASH 간경변) 환자 대상 임상3상은 환자 등록을 마친 상태이고, Pfizer로부터도입한 DGAT-2 억제제인 Evogastat와와 레즈디프라 병용을 포함해 MASH 프로그램은 10개 이상으로 확대됨

[2/11] 삼성에프스홀딩스: MSCI 한국지수 신규 편입

- 기존 MSCI 편입된 제약/바이오 기업은 셀트리온, 삼성바이오로직스, 알테오젠, HLB, 유한양행, SK바이오팜. 이번 편입으로 총 7개로 확대됨. MSCI 지수를 추종하는 자금은 passive 자금이므로, 주가 변동성 완화 및 시장 신뢰도를 높이는 데 기여하는 장점이 있음. 스몰캡 제약/바이오 기업으로는 일동제약, 에이프릴바이오, 오름테라퓨틱이 편입됨
- 이번 지수 편입 결정 후 리밸런싱(지수 반영일) 날짜는 2월27일(금)이고, 효력 발생일은 3월2일(월)임. MSCI 정기 리뷰는 분기별 1회씩 연간 4회 있고, 다음 리뷰일은 5월12일(화)임

[2/13] 약가제도 개선안, 2월20일 건강심사청, 내용 당일 현장 배부하여 긴장감 고조

- 보건복지부는 2월20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소위원회를 개최하고, 기동제 약가유연계약제와 제네릭 산정률 개편 등을 포함한 약가제도 개선안을 상정할 예정. 개선안의 세부 내용은 당일 현장 배부할 예정으로 구체적인 산정률과 산정 방법 등에 대해서는 당일 알 수 있을 것
- 예상하는 산정률은 43~45%로 현행 53.55%에서 추가 인하/ 2026년 7월부터 단계적으로 인하 실행/ 혁신형제약 기업 가산제도 개편안의 구체적인 내용도 중요할 것. 제약사는 대규모 약가 인하가 R&D 투자 위축과 설비/고용 감소, 필수/저가 의약품의 공급 중단 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거세게 반발 중
- 이번 개정안 대로 진행되는 경우 2026년 7월부터 2030년까지 순차적으로 조정되면서 약가 인하가 반영됨

[2/17] 인도, 비만치료제의 미래를 보여줄 것 (Trizepatide 생산 허브 지정 및 Semaglutide 제네릭 출시)

- Lilly가 인도를 Tirzepatide의 글로벌 공급망의 중심지로 활용할 계획을 밝힘. 이 계획에 따라 인도에 위탁 생산 \$1.0bn을 투자할 것. Lilly는 인도에 자체 제조 시설을 운영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인도 내의 위탁 생산 시스템을 활용할 것으로 보임. 계약 제조업체 이름이나 전용 공장 건설 계획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음
- 인도의 제약사 Dr. Reddy's는 Wegovy 제네릭을 50~60% 저렴한 가격에 출시할 예정이라 언급. 인도는 의약품 등의 시험으로 인한 특허의 존속기간 연장(PTE)을 허용하지 않는 국가로, 2026년 3월 주요 특허가 만료되어 제네릭 출시가 가능함. 인도는 Wegovy 특허 만료로 인한 시장 효과를 미리 보여주는 국가가 될 것이므로, 향후 시장 움직임을 주목할 필요가 있음

도표 16. 1H26 주요 학회 일정 (추가 확인 후 Biweekly로 업데이트 됨)

월	개최일	학회명	약자	개최지	비고
2월	02월 23일	World ADC-Europe (유럽 월드 ADC)	World ADC LONDON 2026	London, UK	IKSUDA (리가켄) 주요 패널, 그 외 ADC 관련 기업 주목
	02월 26일	ASCO-GU (ASCO 비뇨기과 학회)	ASCO Genitourinary Cancers Symposium	San Francisco, USA	셀비온
	02월 27일	AAAAI (미국 알레르기, 천식 및 면역학회)	American Academy of Allergy, Asthma & Immunology Annual Meeting	Philadelphia, PA	유한양행
3월	03월 17일	AD/PD (알츠하이머/파킨슨병 학회 국제학술회의)	Advances in alzheimer's and parkinson's therapies an AAT-AD/TD Focus Meeting	Copenhagen, Denmark	참가 및 관련 기업 확인 후 추후 작성 예정
	03월 23일	Bio-Europe (바이오 파트너십 유럽 행사)	Bio-Europe 2026	Lisbon, Portugal	인트셀
	03월 25일	ELCC (유럽 폐암학회)	European Lung Cancer Congress 2026	Copenhagen, Denmark	유한양행(예상)
4월	04월 10일	ASH (미국 혈액학회)	2026 Highlights of ASH® in AISA- PACIFIC	KUALA LUMPUR, MALAYSIA	참가 및 관련 기업 확인 후 추후 작성 예정
	04월 17일	AACR (미국 종양학회)	AACR ANNUAL MEETING 2026	San Diego, USA	자아아노베이션, 동아ST, 셀트리온(예상), 에피스, 리 가켄바이오
	04월 28일	Bio-China (바이오 파트너십 중국 행사)	Bio-China 2026	Shanghai, China	인트셀
5월	05월 02일	DDW (소화기계 학회)	Digestive Disease Week	Chicago, USA	HK이노엔
	05월 06일	ESMO breast cancer (유럽 유방암학회)	European Society for Medical Oncology Breast Cancer 2026	Berlin, Germany	참가 및 관련 기업 확인 후 추후 작성 예정
	05월 27일	EASL (유럽 간학회)	European Association for the Study of the Liver Congress 2026	Barcelona, Spain	한미약품(예상)
	05월 29일	ASCO (미국 임상종양학회)	2026 Annual Meeting of the American Society Of Clinical Oncology	Chicago, IL	리가켄바이오(NextCure, Cstone 등), 한미약품(예상), 지아아이노베이션
6월	06월 05일	ADA (미국 당뇨병학회)	American Diabetes Association 2026	New Orleans, LA	한미약품(예상), 동아ST
	06월 13일	ENDO (미국 내분비학회)	Endocrine Society ENDO 2026	Chicago, IL	참가 및 관련 기업 확인 후 추후 작성 예정
	06월 16일	EACR (유럽 암연구학회)	European Association for Cancer Research	Rotterdam, Netherlands	참가 및 관련 기업 확인 후 추후 작성 예정
	06월 22일	Bio-USA (바이오 파트너십 미국 행사)	BIO International Convention 2026	San Diego, USA	인트셀

자료: 하나증권

도표 17. 국내 주요 제약사의 수출 비중, 주요 품목, 관련 지표

기업명	수출 비중	주요품목	관련 지표
SK바이오팜	100.0%	엑스코프리(US): 총 매출 80%	[Xcopri 미국 처방수와 월별 변동률] (TRx) (TRx MoM) XCOPRI MoM (우) *자료: Bloomberg
삼성바이오로직스	96.9%	- 로직스: CDMO - 에피스: BS	[로직스 연간 수주 증감액과 시가총액(공시일 기준)] (조원) (조원) 연간 수주 증감액(좌) 시가총액(전체) *자료: Dart, 하나증권
셀트리온	89.7%	집펄트라 매출액: 4Q24 280억, 1Q25 134억, 2Q25 226억, 3Q25 281억	(TRx 수) 집펄트라 TRx 수 * 자료: Bloomberg
녹십자	29.9%	- 주: 알리글로 - 부: 알부민 등	[면역혈청과 그 밖의 혈액 분획물 글로벌 수출 동향] (mln \$) (kg) 금액 중량 * 자료: Trass (국내지역 : 충북 청주시/ 품목 : [300212] 면역혈청과 그 밖의 혈액 분획물) * 높은 중량과 높은 금액이 일치할 때 알리글로 향으로 해석

유한양행	20.6%	기술료 수익, 원료 등	해외사업부문의 매출은 유한화학 원료 생산 매출 및 그 원료의 수출 그 외 라이선스 수익 [Rybrevant, Lazcluze 월 처방수 (좌,우: TRx)] [Rybrevant, Lazcluze 월 신규처방수 (좌,우: NRx)]
에스티팜	95.9%	제품(API) 매출 비중 : 수출 매출 78.3%	[분기별 누적 수주잔고 및 시가총액]
대웅제약	16.8%	- 나보타 수출액 : 총 수출 84% - Evolus 가이드선스 : -14% 하향	[화성시(향남 나보타 공장 소재) 미국향 독신 수출 동향] *국내 전체 미국향 독신 전체 수출량 중, 화성시 수출량이 매일 90% 전후반 유지 중 * 자료: Trass (품목: [3002491000] 독소, 독소이드(toxoid), 크립토크소(cryptotoxin), 항독소(anti-toxin)/ 국내지역 : 경기 화성 시/ 국가 : 미국)

주: 수출 비중은 3Q25 기준
자료: 각 그래프에 표시, 그 외 Dart, 하나증권

도표 18. 국내 주요 제약사 실적 컨센서스(2026.02.13 기준, 다음 분기 매출 및 영업이익 모두 상승시 음영 표시)

(단위: 십억원)

기업명	시가 총액	매출액					영업이익				
		1Q25	4Q25	1Q26F	2025	2026F	1Q25	4Q25	1Q26F	2025	2026F
셀트리온	54,989	842	1,330.2	1,135.1	4,162.5	5,209.1	149.4	475.2	342.3	1,168.5	1,677.3
삼성바이오로직스 (TP: 2,050,000원)	79,158	1,298.3	1,285.7	1,258.2 (F.1,227.8)	4,557.0	5,291.3 (F.5,466.1)	486.7	528.3	619.0 (F.560.6)	2,069.2	2,440.3 (F.2,537.5)
삼성에피소홀딩스 (TP: 610,000원)	15,004	nr	425.8	473.1 (F.473.1)	1,618.4	1,906.0 (F.1,906.0)	nr	-4.7	56.4 (F.56.4)	280.1	203.4 (F.203.4)
유한양행	8,666	491.6	546.1	549.4	2,186.6	2,408.2	6.4	26.1	31.2	104.4	160.7
녹십자	2,037	383.8	497.8	440.4	1,991.3	2,160.3	8.0	4.6	12.7	69.2	95.7
한미약품 (TP: 640,000원)	7,699	391.0	433.0	413.9 (F. 410.2)	1,547.5	1,675.0 (F. 1,704.7)	59.0	83.3	68.0 (F.69.3)	257.8	279.5 (F. 283.0)
대웅제약	1,964	356.5	397.1	392.3	1,570.9	1,745.0	38.7	43.3	47.2	196.8	236.3
HK이노엔	1,527	247.4	291.9	270.0	1,063.2	1,128.7	25.4	40.1	29.2	110.9	126.3
종근당	1,297	401.0	426.8	443.0	1,692.4	1,772.0	12.5	23.5	19.2	80.6	86.3
휴온스글로벌	662	199.1	224.5	nr	847.5	nr	25.6	19.5	nr	90.6	nr
동아에스티	493	182.1	nr	194.2	nr	829.9	-4.8	nr	7.3	nr	36.3
보령	812	240.6	245.4	nr	1,017.4	1,093.3	10.9	-0.7	nr	65.1	107.6
SK바이오팜 (TP: 160,000원)	8,552	144.4	194.4	205.8 (F. 215.5)	706.7	921.2 (F. 939.8)	25.7	46.3	68.3 (F. 83.3)	203.9	336.3 (F. 373.4)
동국제약	819	223.7	nr	246.8	nr	1,013.0	25.3	nr	27.6	nr	114.3
에스티팜	3,047	52.4	129.1	72.7	331.7	407.3	1.0	26.5	5.5	55.2	71.0
셀트리온제약	3,154	112.5	154.4	nr	536.4	nr	10.7	13.7	nr	56.1	nr
JW중외제약	810	185.2	198.4	nr	774.8	nr	22.0	14.6	nr	93.6	nr
일동제약	1,142	136.0	147.0	nr	566.9	588.7	4.2	7.9	nr	19.5	37.2
대원제약	263	157.8	160.0	166.4	605.6	640.2	9.4	5.8	5.9	3.4	15.2
제일약품	218	163.0	nr	nr	nr	nr	5.7	nr	nr	nr	nr
삼천당제약	12,550	50.6	66.3	nr	231.8	235.0	0.7	5.4	nr	8.5	45.0
바이넥스	480	39.8	nr	nr	nr	228.1	0.5	nr	nr	nr	24.9

주1: 4Q25→1Q26F 매출과 영업이익 모두 개선되는 것으로 추정된 종목은 녹색 음영 표시

주2: Coverage 종목의 Forecasting은 "F."으로 표시

*삼성바이오로직스, 삼성에피소홀딩스는 4Q25 실적 발표하여, 다음 분기 예상 실적을 반영한 리포트 발간 예정

주3: 종목 선정: 2025년 9월 기준 자산총액 상위 10조 이상 +a(임의) 중 선정 (제외 종목: 지주사, 60% 이상의 매출이 의료/미용기기, 화장품, 건강기능식품인 종목 등)

자료: QuantWise, FnGuide, 하나증권

Coverage 및 관심 종목 월간 코멘트

삼성바이오로직스 (TP 2,050,000원, 유지): CAPA 확장 소식을 기다리며

- '26년 가이드리스 제시: 매출액 +15~20% (원/달러 환율 1,400원), 미국 록빌 공장 인수에 따른 매출 기여분은 미반영. 이익 가이드리스는 제시하지 않았으나, OPM 50% 재현은 1Q26 내 미국 록빌 시설 인수 후 약 500명의 미국 임직원 수 증가로 인한 인력 비용, 설비 교체 등에 소요되는 비용 등으로 어려울 것이라는 판단.
- 최근 부진한 주가는 대규모 CAPA 확장 소식이 부재한 중에 5공장의 ramp-up 속도에 대한 불안함이 남아 있기 때문으로 판단. 6공장 증축 또는 미국 공장 규모 확대 투자 등 CAPA 확장 소식을 기대함. 27년 내 6공장 가동에 대한 계획은 여전히 유지하고 있으므로 늦어도 상반기 내 착공 소식을 들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

삼성에피스홀딩스 (TP 610,000원, 유지): MSCI 편입, 이제 유지가 관건

- '26년 가이드리스 제시: 에피스 별도 기준 매출액 +10% 이상, OPM 20% 이상 유지. 서프라이즈는 유럽 직판 구조의 시장 진입 속도에 달려 있음.
- 2월 MSCI 지수에 편입되어, 리밸런싱(지수 반영일) 날짜인 2월27일(금)과 효력 발생일인 3월2일(월) 사이에 추가 변동성이 커질 예정. MSCI 정기 리뷰는 분기별 1회씩 연간 4회 있고, 다음 리뷰일은 5월12일(화)로서, 1Q25 실적 성장을 보여줌으로써 추가 유지가 중요. 2월 리뷰의 경우 cut off는 약 12조원 수준이었음.
- 인투셀과 공동개발한 ADC 신약 SBE-303은 4월 AACR에서 우수성을 발표할 예정. FDA IND 승인됨에 따라 26년 내 본격적으로 임상1상을 수행할 것으로 보이고, 환자 모집이 빠르게 이루어진다면 연말 EMSO 등에서 중간 결과 발표도 들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 에피스홀딩스는 연간 1개 이상의 신약 파이프라인의 IND 신청을 목표로 하나, '26년은 없을 것으로 예상.

알테오젠 (TP 580,000원, 유지): NDR을 통해 확인된 가까운 시일 내의 기술이전 가능성

- 분쟁 현황: 할로자임의 2차 특허 보정 기한 2026/02/16이었으나 보정 없이 반박으로 대응함. 3월2일 구두 변론 후 6월2일 내 심결이 나오는 일정만 남음. 15개의 PGR은 예상대로 최초의 PGR과 같은 스토리로 흘러가는 중. 패밀리 특허이므로 결과는 동일할 것. 독일 특허무효예비판결 2-3월 예상하고 그에 따라 가져분 명령 취소 기대. 영국은 STAY, 네덜란드 및 프랑스는 무효 심판 청구 했음에도 불구하고 가져분 신청은 없었던 것으로 보임. 제조방법에 대한 미국 IPR 청구는 중요한 특허가 아니므로 집중할 사항은 아니라고 판단.
- Keytruda Qlex의 로열티 충격은 이미 추가에 전부 반영되었다는 판단(상세한 내용은 2/19 발간 NDR 후기 참고). 또한 상반기에 12월 옵션 계약한 건의 본계약, 글로벌 빅파마와의 대형 딜, 기존 파트너십들의 임상 진입으로 인한 마일스톤 수령 등의 이벤트가 대기 중이므로 매수하기 적절한 시점이라는 판단.

한미약품 (TP 640,000원, 상향): 4Q25 실적 서프라이즈, 그 보다 더 서프라이즈한 기술이전 가이드리스 제시

- '26년 가이드리스: 매출액 10% 이상, OPM 15% 이상 달성, 기술이전 1건 이상 제시함. 매출액과 OPM은 선급금이나 마일스톤은 배제한 것으로 판단됨. 기술이전 가능성이 높은 파이프라인은 삼중작용제 HM15275와 근육강장제 MH17321로 보고 있고, 최근 FDA로부터 BTD 지정 받은 선천성 고인슐린중증군 치료제 에페거글루카곤도 빅파마의 관심을 받을 만하다는 판단.
- 에페글레타나이드(국내 비만치료제 신약)는 12월17일 국내 품목허가 신청하여 26년 하반기 시판허가 획득 및 출시 예정되어 있고, 멕시코 시장 진출을 위한 파트너십 계약도 체결하여 회사의 약속대로 시장은 국내에 한정되지 않을 것. '26년 상반기 MASH 치료제인 에피노페그듀타이드의 임상2b상 발표(학회 발표시 5/27 EASL 유력), 하반기 UCN2 임상1상 결과 확인 등 추가에 유의미한 R&D 이벤트가 많고 실적 회복도 확인되어 '26년 최선호주 유지.

SK바이오팜 (TP 160,000원, 유지): Xenone의 아제투칼너 임상3상 이벤트로 조금 불안한 1분기

- '26년 가이드리스: 엑스코프리 US 550mn~580mn\$(YoY+29%, 환율 1395원/달러), 기타매출 1,100억원(YoY+44%). 올해는 4Q25에 나가는 물량을 조절하여 1Q26에도 실적이 꾸준히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나, Xeone의 아제투칼너(XEN1101) P3 결과 1H26 내(3월 예상) 나올 것으로 예상되며 1분기는 조금 불안한 분위기를 형성하는 중.
- 세노바메이트 시장 확대 증으로, 국내 11월 초, 중국 12월 시판 허가 획득. 일본은 9월 IND 신청했으나, 26년 하반기에 시판 허가 받을 것. 26년-27년 꾸준히 매출 상승할 것임을 확신할 수 있음. 다만 12월 첫번째 RLT 파이프라인 임상 1상 IND 승인과 함께 방사선 의약품 신약 파이프라인이 대거 개발에 돌입하여 연간 영업이익 감소의 불안감도 높아짐. 현재 세노바메이트에 대한 의존도가 너무 높아 2nd Product 도입은 필요한 상태이고 회사는 타겟을 더 넓혀 적절한 제품을 도입하겠다는 의지를 밝힘.

리카렘바이오 (TP 220,000원, 유지): 비학회 시즌에도 견고한 추가 움직임

- 회사는 추가 L/O를 위해 ADC Bio Better 전략과 Target Exclusive Package Deal(다양한 옵션을 제공하되, 타겟에 대한 독점 계약)로 파트너십을 시도하는 중. 최근 1/7 ASCO C에서 LCB14(KSUDA, HER2)의 식도암 환자 10명 중 ORR 50% 확인하여 용량 확장 단계에 'HER2+ 식도암' 코호트 추가할 계획. '25년 10월 ESMO에서 Enhertu 불응성 환자에 대한 ORR 75% 효능도 확인함. 해당 임상1상은 '26년 9월 종료 예정 (NCT05872295).
- '26년은 Ono(LCB97), SOTIO, IKSUDA의 신규 임상1상 진입에 따른 마일스톤 유입 가능성 높음. 4월 AACR에서 자체 개발 중인 신규 파이프라인 공개, 5월 ASCO에서 IKSUDA, Cstone(LCB71, ROR1-pPBD)의 특정 Cohort에 대한 임상1상 중간 결과를 발표할 것으로 예상함. 2월 ADC Europe에서 IKSUDA는 다수의 프로그램에 speaker로 참가. 요즘 큰 관심을 모으고 있는 Enhertu 불응성 환자에 대한 효능, 부작용 관련 이점(특히, 간질성 폐질환)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할 것.

디앤디파마텍 (Not Rated, 관심종목): 경구용 비만 치료제에 대한 기대감을 다시 가져볼 만 하다

- MASH 치료제는 궁극적으로 Fibrosis 개선을 보여줘야 하고, Top line 발표는 26년 상반기로 예정되어 있음. 투약은 종료하였고, Top line 발표 시기는 5월경.
- Pfizer가 4Q25 Earning Call에서 Met-097i가 아닌 Met-224o에 관심을 가지며 경구제 플랫폼 모델링 부활 가능성 높아짐. 또한 NLY02 (퇴행성 신경질환 타겟, RPK2 선택적 저해), Lilly가 관심 보이는 RLT 개발사 Z-alpha의 지분 보유(15%)하고 있으니 참고할 것. NLY02는 공동개발사 퍼스트바이오가 내년 1분기 기술성평가 확보하고 5~6월 코스닥 예비심사 청구하는 계획인 만큼, 상반기에 L/O 소식이 있을 가능성도 높다는 판단.

지아이이노베이션 (Not Rated): 5월 ASCO GI-101/101a, 상반기 내 102 단독 투여 임상도 발표할 것

- 주력 파이프라인이던 GI-102의 경우, SC 단독 투여 1b상, GI-102+키트루다 투약 2a상, GI-102+엔허투 투약 2a상에 대해 '26년 내 임상 발표 예상. 단독 투여 1b상의 경우 올해 상반기 내 결과를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고(환자 50명 예상), 임상 종료 후 Top line 확인되는 대로 공시가 있을 것이니 학회 일정과 무관하게 R&D 타임라인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
- GI-101/101a는 5월 ASCO에서 발표할 것. 발표할 데이터는 키트루다 병용 임상1상에 관한 것으로, 현재 임상2상을 준비 중 (방광암, 신장암, 폐암, 대장암)
- 유한양행에 기술이전한 GI-301의 임상2상(만성 자발성 두드러기 환자 150명 대상, 12주간 약물군 및 위약군으로 투약하고, 한국/유럽/아시아 국가에서 다국가 임상 진행 계획)도 한국/중국은 IND 승인되어 '26년 중 임상 진행될 것으로 예상. 기술이전도 꾸준히 시도될 것으로 보임.

인투셀 (Not Rated, 관심종목): 본계약 또는 마일스톤 수령 이벤트 대기 중

- 에피소홀딩스가 NxT3를 적용한 ADC를 방광암에 대해 임상1상을 진행하기 위한 IND를 12월2일 FDA 신청하여 승인됨. OHPAS 링커와 공동개발한 NxT3 적용되었음에도 옵션 행사에 따른 본계약(또는 프로젝트 딜)을 체결이나 마일스톤 등 이벤트가 없는 것이 주가 부진한 이유로 판단.
- 자체 개발 중인 신약에 대해 국내와 미국에 임상1상 IND도 승인된 상태로, Duocarmycin을 적용하여 NxT3 없이 OPHAS 링커의 기술력을 입증할 전망이니 주목할 가치가 높음. 에피소와 개발 중인 파이프라인도 4월 AACR에서 전임상 데이터 발표 예정이라, OHPAS 링커에 대한 관심도 높아질 것을 기대. 회사는 새로 꾸려진 BD팀을 통해 Bio-Europe, Bio-China, Bio-USA 등 상반기 파트너십 행사에 참석하여 꾸준히 기술이전을 시도할 것.

셀비온 (Not Rated, 관심종목): 2월 ASCO-GU에서 임상 결과에 대한 많은 관심 모을 것, 키트루다 병용 첫 환자 투약은 3월로 연기

- 임상2상 단독 투여 CSR 보고서 결과를 바탕으로 12월30일 예정대로 국내 식약처에 조건부허가신청 완료. 26년 하반기 국내 출시를 기대함 (현재 플루빅토 국내환자 1회 투여 3천만원, 임상 기준 최대 6회 투여). 상세한 데이터에 대해서는 2월 26일-28일 개최되는 ASCO-GU(San Francisco, USA)에서 발표할 예정. 한편, GIFT 지정되면 조건부허가신청일로 90영업일 내 승인 될 가능성 있고, 이 경우 국내 조건부허가승인 획득 예정일은 5월 중순임.
- 키트루다 병용 임상(국내) 1상 IND 승인받아 임상수행기관에서 심의도 통과한 상태. mCRPC 환자 30명 대상 pre-Taxane 대상 임상하여 2L 진입 노릴 것. 임상 계획의 일부 수정으로 환자 첫 투약은 3월로 연기. 그러나 임상2상 성과가 매우 우수하고, 키트루다라는 신뢰도 높은 약물과의 병용 투약하므로 빠르게 환자 모집하여 '26년 하반기 내 임상1상 중간 결과 발표까지 기대함. 중간 결과 성과에 따른 MSD로의 기술이전도 기대. 키트루다는 연구자 임상에서 플루빅토와 병용 투여 시 mOS를 12.9개월 연장할 수 있는 것으로 보였는데, P2에서 플루빅토 대비 낮은 혈구 독성을 보였기 때문에 키트루다의 효능이 더욱 증폭될 것으로 전망.

펩트론 (Not Rated, 관심종목): 추가 물질을 평가 후 본계약 체결 이루어질 것

- 터제파타이드(추정) 제형에 대한 본계약 진행 여부를 기다리는 중이고, 추가 물질 제형화를 포함한 계약이 체결될 가능성도 있음. 지금까지의 소통 상황으로 보아 긍정적으로 조금 더 기다려 볼 것을 제안함.
- 그 외 루프원의 국내 시판 허가에 기반한 시장 확대를 시도하는 중.

인벤티지랩 (Not Rated, 관심종목): BI 추가 계약에 따른 제형 전달, 그에 따른 본계약 기대

- 인벤티지랩 또한 다양한 글로벌 빅파마 또는 지역 파마와 공동개발/기술이전 논의를 진행 중인 것으로 보임. 베링거인겔하임에 전달받은 후보물질에 대한 첫 번째 제형을 개발하여 전달하였고 11월에는 그에 따른 추가 물질 개발 계약을 체결함. 그 추가 물질에 대한 제형을 1Q26 내 전달하고, 2Q26 내 피드백을 받아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기대하는 타임라인대로 개발이 진행되는 경우 상반기 본계약 가능성이 대두될 수 있음.
- 최근 글로벌 빅파마 및 다수의 Local pharma(ex. 자체 개발 펩타이드계 약물을 보유하는 또는 Semaglutide 이용하려는)도 공동개발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어, 1H26 내 계약(공동개발 예상) 체결 소식을 들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지투지바이오 (Not Rated, 관심종목): 추가 파트너십 소식을 기다리며

- 지투지바이오 또한 추가의 파트너십 체결을 위해 제형 공동개발 및 본계약 여부를 논의 중. 최근 유증 관련 기사로 주가가 불안정하게 반응한 바 있음.
- AZ의 최근 CSPC의 Liquid Gel 장기 지속형 플랫폼 계약 관련 이슈 발생한 바 있으나, CSPC 기술의 경우 in situ Gel로 추정되어 제형 자체가 전신 순환하는 microsphere와는 거리가 먼 것으로 판단됨.

도표 19. Coverage 및 관심 종목의 1Q26-2Q26이벤트(2026.02.13 증가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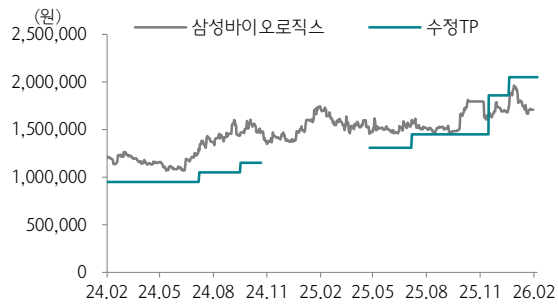
(단위: 원)

기업명	TP	주가	상승 여력	1Q26	2Q26	비고
삼성바이오로직스	2,050,000	1,710,000	20%	1월 초 4Q25 예상실적발표 6공장 증축 발표 기대 - JPM 행사에서 '26년 전망 발표	4월 초 1Q26 예상실적발표	1H26 내 6공장 증축 소식 기대
삼성에피스홀딩스	610,000	603,000	1%	1/26 4Q25 실적발표 - JPM 행사에 참여하기 위한 IR Deck 공개	4월 AACR 참석(확정) 5월 초 1Q26 실적발표	자회사 확대, 학회 발표 등 주목
알테오젠	580,000	382,000	52%	- 미국 PCR에서 Halozyne와 보정 시도 및 함약 2-3월 독일 가져분신청 예비 판결	- 코스피 이전 상장(예상) - 미국 PCR 최종 심결 확인(5월 말-6월 2일) 12월 옵션 계약 건의 본계약 체결 기대	1H26 내 추가 L/O 2건 이상 체결 기대 - 미국 PCR 일정은 최종 심결 일정만 남음 - 코스피 이전 상장은 3Q말~4Q 전망 - 신규 파트너사 등장 예상 (10개 이상 논의 중)
한미약품	640,000	601,000	6%	2/5 4Q25 실적발표 - JPM 행사에서 MSD 발표	4월 초 1Q26 예상실적발표 5월 에피노페그듀타이드 (MASH) P2b Top line 발표	4Q25 실적 상승 전망 - 연내 1개 이상 기술이전 가이던스 제시함
SK바이오팜	160,000	109,200	47%	2월 초 4Q25 실적발표	5월 초 1Q26 실적발표	- 엑스코프리의 4Q도 매출 상승 이어갈 전망 2nd Product 도입 기대
리가캠바이오	220,000	176,600	25%	'25년 이월된 L/O 1건 이상 체결 기대 - JPM 행사를 통한 J&J P1 종료 및 P2 진행 여부 확인	4월 AACR 참석 5월 ASCO 참석 6월 Bio-USA 참석(예상)	- Bio Better, Package Deal의 경우 연제든 L/O 모델 보유 - 각 파트너사의 개별적 R&D 성과 공개 기대 - 임상 단계 상승 예정 파트너(마일스톤 수령): Ono(LCB97), SOTIO, IKSUDA
디앤디파마텍	NR	83,500	-	JPM 행사 참가해 발표	5월 DD01(MASH) P2 Top line 발표	Pfizer와의 협력 관련 소식 기대
지아이이노베이션	NR	14,800	-	GI-102 SC 단독 P1b 결과 발표 기대	5월 ASCO GI-101a P1(키트루다 병용) 공개	4월 AACR GI-101a 공개 이벤트는 5월 ASCO로 변경 - GI-102: SC제형(단독) P1b, 키트루다 병용 P1/2, Enhertu 병용 P2a 진행 중 (단독은 1H26, 그 외 '26년 내 데이터 확인 예상) - GI 301: 유한양행 공동개발
인투셀	NR	52,700	-	본계약/마일스톤 수령 등	-	학회 발표 보다는 파트너십 행사를 통한 L/O 논의 (Bio-USA/ Europe/ China 등)에 집중할 것
셀비온	NR	33,150	-	- 키트루다 병용 투약 시작 2월/26 ASCO-GU에서 P2 상세 데이터 발표	5월 중순 국내 조건부허가 승인(GIFT 따르는 경우)	키트루다 병용 투여에 따른 기술이전 기대감 보유 (P1 중간결과 확인이 가능한 2H26 이후 예상)
펩트론	NR	244,000	-	Lilly와의 본계약 기대	Lilly와의 본계약 기대	Lilly와의 평가기간은 정정된 공시 상 최대 '26년 9월로 연기됨
인벤티지랩	NR	77,700	-	1건 이상의 공동개발 또는 L/O - BI에 제형 전달 예정	- 추가 공동개발 또는 L/O - BI의 제형에 대한 피드백 기대	1H26 내 글로벌 빅파마 또는 지역 파마로 1건 이상 기대
지투지바이오	NR	89,400	-	추가 공동개발 또는 L/O	추가 공동개발 또는 L/O	추가 공동개발계약 기대

주: 삼성바이오로직스, 한미약품은 일반적으로 공식적인 예상실적 발표하는 기업. 삼성에피스홀딩스는 로직스와 연결기업일 때 예상실적 발표하였으나, 이번 4Q25 예상실적은 발표하지 않음
 자료: 하나증권

투자의견 변동 내역 및 목표주가 괴리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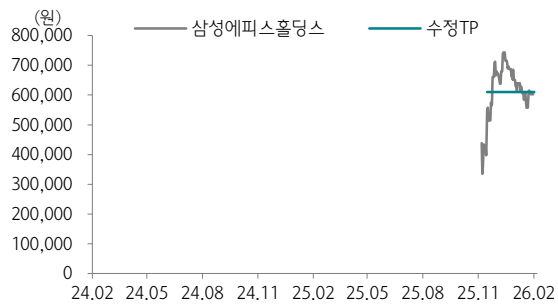
삼성바이오로직스



날짜	투자의견	목표주가	괴리율	
			평균	최고/최저
26.1.7	BUY	2,050,000		
25.12.3	BUY	1,860,000	-8.44%	-3.76%
25.7.24	BUY	1,450,000	10.83%	1.09%
25.5.13	BUY	1,310,000	15.45%	11.45%
25.4.16	담당자 변경		-	-
24.10.4	BUY	1,150,000	32.34%	17.23%
24.7.25	BUY	1,050,000	35.65%	24.75%
23.10.5	BUY	950,000	19.39%	8.13%

투자의견 변동 내역 및 목표주가 괴리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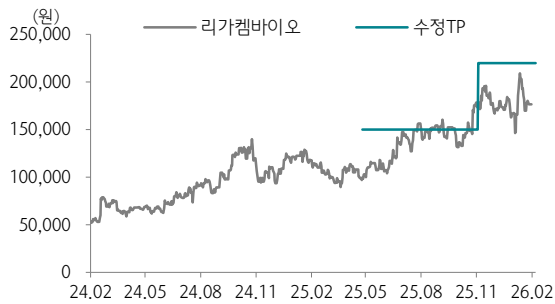
삼성에피스홀딩스



날짜	투자의견	목표주가	괴리율	
			평균	최고/최저
26.2.9	Neutral	610,000		
25.12.3	BUY	610,000	5.08%	21.80%
25.11.28	Not Rated	-	-	-

투자의견 변동 내역 및 목표주가 괴리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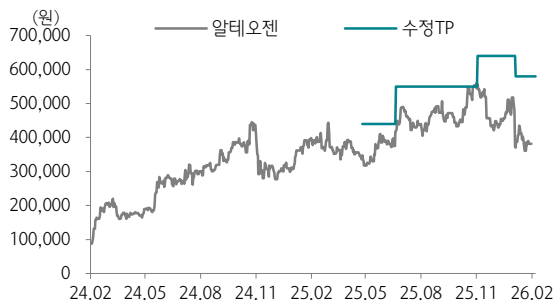
리가캠바이오



날짜	투자의견	목표주가	괴리율	
			평균	최고/최저
25.11.21	BUY	220,000		
25.5.13	BUY	150,000	-8.77%	19.00%
23.5.25	Not Rated	-	-	-

투자의견 변동 내역 및 목표주가 괴리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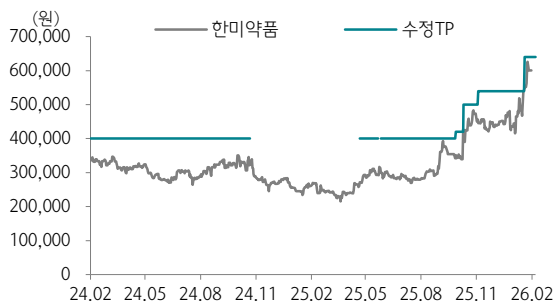
알테오젠



날짜	투자의견	목표주가	괴리율	
			평균	최고/최저
26.1.22	BUY	580,000		
25.11.20	BUY	640,000	-26.04%	-15.31%
25.7.8	BUY	550,000	-14.86%	1.64%
25.5.13	BUY	440,000	-16.59%	-5.23%

투자의견 변동 내역 및 목표주가 괴리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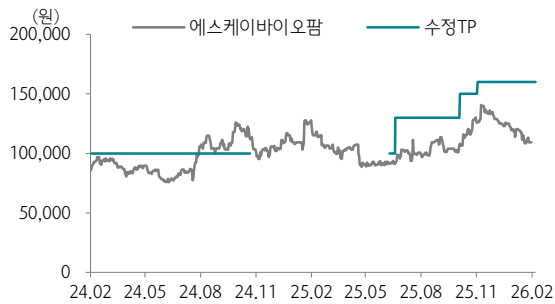
한미약품



날짜	투자의견	목표주가	괴리율	
			평균	최고/최저
26.2.6	BUY	640,000		
25.11.21	BUY	540,000	-15.90%	0.19%
25.10.28	BUY	500,000	-10.58%	-3.40%
25.10.15	BUY	420,000	-15.30%	1.90%
25.6.13	BUY	400,000	-24.33%	-1.75%
25.6.9	Not Rated	-	-	-
25.5.9	BUY	400,000	-26.51%	-22.13%
25.4.16	담당자 변경	-	-	-
24.1.10	BUY	400,000	-26.21%	-11.75%

투자의견 변동 내역 및 목표주가 괴리를

에스케이바이오팜



날짜	투자의견	목표주가	괴리율	
			평균	최고/최저
25.11.20	BUY	160,000		
25.10.22	BUY	150,000	-20.38%	-13.13%
25.7.7	BUY	130,000	-21.21%	-12.69%
25.6.27	BUY	100,000	-7.70%	-6.30%
25.4.16	담당자 변경		-	-
23.11.10	BUY	100,000	-2.17%	27.90%

Compliance Notice

- 당사는 2026년 2월 19일 현재 해당회사의 지분을 1%이상 보유 하고 있지 않습니다
- 본 자료를 작성한 애널리스트(김선아)는 자료의 작성과 관련하여 외부의 압력이나 부당한 간섭을 받지 않았으며,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여 신의성실 하게 작성하였습니다.
- 본 자료는 기관투자자 등 제 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 본자료를 작성한 애널리스트(김선아)는 2026년 2월 19일 현재 해당회사의 유가증권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본 조사항목은 고객의 투자에 정보를 제공할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어떠한 경우에도 무단 복제 및 배포 될 수 없습니다. 또한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가 신뢰 할 만한 자료 및 정보로 얻어진 것이나,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최종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고객의 주식투자의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투자등급 관련사항 및 투자의견 비율공시

- 투자의견의 유효기간은 추천일 이후 12개월을 기준으로 적용

기업의 분류

BUY(매수)_목표주가가 현주가 대비 15% 이상 상승 여력
Neutral(중립)_목표주가가 현주가 대비 -15%~15% 등락
Reduce(비중축소)_목표주가가 현주가 대비 15% 이상 하락 가능

산업의 분류

Overweight(비중확대)_업종지수가 현재지수 대비 15% 이상 상승 여력
Neutral(중립)_업종지수가 현재지수 대비 -15%~15% 등락
Underweight(비중축소)_업종지수가 현재지수 대비 -15%~15% 등락

투자등급	BUY(매수)	Neutral(중립)	Reduce(매도)	합계
금융투자상품의 비율	96.73%	3.27%	0.00%	100%

* 기준일: 2026년 02월 16일